

중부권

“억대부농 비법 알려드려요”

나주시가 역대 부농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나주시는 9일 “세계적 급속 위기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환경 속에서 경영혁신과 창의적 농업으로 고소득 농민을 육성, 농업과 농촌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생명의 땅 1억농 CEO(최고 경영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출액 1억원, 순소득 5천만원 이상인 농가를 현재 560여 곳에서 2012년까지 식량작물, 축산, 화훼, 채소 등 6개 분야에 걸쳐 1천 곳으로 늘리기

나주시 ‘선택과 집중’ 통한 맞춤형 정책 전환

‘1억농 CEO’ 2012년까지 1천명 만들기 추진

로 했다. 이를 위해 타지역의 벤치마킹을 비롯해 각 농가별로 의견을 수렴,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분야별 세부계획과 지원사업 발굴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이미 확보 돼 있는 예산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6

월 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전 농가를 대상으로 각종 예산을 지원했던 방식에서 탈피, 영농 규모와 소득 단계별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식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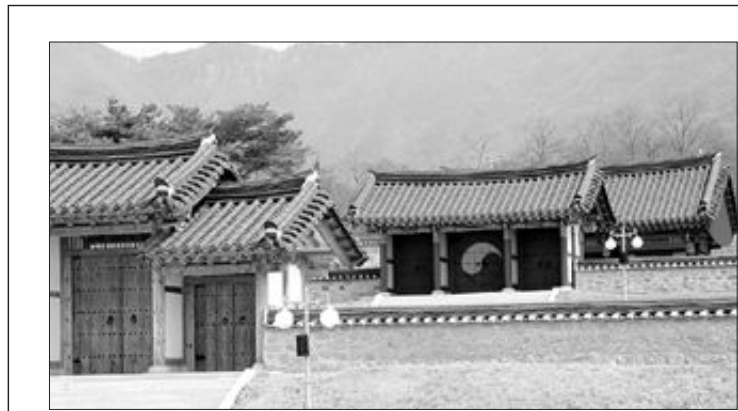
또 고소득을 올리는 1억농 CEO를 조직화해 귀농자나 창업농 등 후발 농업인 교육과 상담 등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김태구 자치농정과장은 “시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농 CEO들을 육성해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현재 1억 이상의 매출액(농업소득 5천만원 이상)을 올린 농가가 560여 농가, 5천만원 이상은 600여 농가가 있다.



‘도감사 가는길’ 노란 유채꽃 만발 9일 영암 도감사 가는 길에 노란 유채꽃이 활짝 피면서 기암괴석의 월출산과 조화를 이뤄 아름다움을 더해 주고 있다. 영암군은 70ha 규모의 유채꽃만밭에 탐방로와 포토존을 설치,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암군 제공)



의병장 고향순 기념관 연내 완공

담양군 을 2억 들여 담양공사 등 마무리 박차

한말 의병장인 녹천(鹿泉) 고광순(1848~1907) 의사 기념관 건립사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

9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 온 ‘녹천 고광순 기념관’ 건립사업이 그동안 23억3천500만 원을 들여 사당을 비롯 유물전시관과 관리사무소, 내·외삼문 건립, 진입도로 개설 등을 마무리했다.

군은 올해도 2억원의 예산을

들여 담양공사를 마무리하고 중문 건립과 장애인 경사로 설치 및 유물전시관에 대한 전시설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민선 4기 들어 사업비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일부 여론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11억6천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꾸준히 사업이 추진돼 오고 있다”고 밝혔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

나주배농가 “냉해 때문에...”

새벽 영하기는 ‘뚝’ 결실을 떨어져 30% 피해

최근 이상고온으로 일찍 개화한 배꽃들이 냉해를 입어 나주시역 배 재배농민들이 결실률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9일 나주시역 배 재배농민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배 꽃눈이 형성되고 있으나 이 시기에 2~3차례 새벽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 꽃눈이 얼어 씨방이 까맣게 변하는 피해를 입었다.

씨방이 까맣게 썩은 경우 인공수분을 시켜도 착과가 되지 않는 등 열매가 맺히지 않아 1년 농사를 망치는 결과까지 초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주시역의 경우 배 꽃 개화가 시작된 지난달 26일 기온이 영하 4도로 떨어졌으며 지난 1일과 2일에도 온도가 3.8도로 떨어져 결실에 치명적인 냉해 피해를 입었다.

이 같은 피해는 전체 2천500ha(3천 농가)의 배 재배면적 중 30%가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농가들이 실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피해

를 호소하고 있다.

K모(62·나주시 금천면)씨는 “꽃눈이 얼어 인공수분을 시켜도 결실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경우 1년 농사를 망치는 것인 만큼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 배시험장 관계자는 “첫번째부터 3~4번째까지 열린 꽃의 씨방이 얼었지만 나머지 꽃 가운데 하나만 수정하면 착과가 가능하다”며 “인공수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냉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농작물 재해보험 중 냉해 보상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밭을 동동 구르는 가운데 이만주 배꽃이 만개하는 시점에 또 한차례 이상 저온이나 서리가 다칠 경우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어르신 치매 조기 검진받으세요”

화순군 60세 이상 노인

무료 조기검진 첫 실시

화순군은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발견 무료 검진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화순보건소는 지난 7일 치매 조기검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 거점병원(화순고려병원, 화순성심병원, 보은병원) 협약식을 가졌다.

치매 무료검진 방법은 보건소에

서 치매선별 검사지(MMSE-KC)를 이용해 1차 선별검사 후 인지저하로 판명된 노인은 화순 관내 거점병원에서 2·3차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또 치매진단을 받을 경우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관리와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노인 전문병원 등에 입소내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 보건소에서는 노

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치매상담 센터를 연중 운영 하고 있다.

군 보건소는 등록된 치매 환자들에게는 매월 1회 방문을, 거동불능 치매노인에게는 성인을 기저귀 보급 및 욕창관리 등의 맞춤형 보건 의료서비스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영암경찰 ‘학교폭력 근절’ 교육

영암경찰서(서장 김재병)는 지난 6일 영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근절 및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이날 교육은 청소년들이 저지르기 쉬운 범죄 유형별 사건 사례를 소개하고 ▲학교폭력 발생시 대처요령 ▲학교폭력 피해 및 처벌 등을 사례 중심으로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김재병 서장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판단력이 부족



한 청소년들이 호기심과 충동적인 범죄행위로 꿈과 희망이 좌절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꿈꾸고, 믿고, 실행하라”고 당부했다. /영암=박재신기자 pjs@

Advertisement for Kim Young's university entrance preparation course. It features the slogan "2010년 = 상위권대학 편입학 성공전략" and "대학편입은 역시 김영". It lists the course as "KY Membership 회원모집"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Kwangju branch at 227-8088.

Advertisement for the Kwangju, Jeonnam region auction. It features the slogan "(주)국민법률경매" and "광주, 전남지역 경매". It lists contact information: 062)364-8700 and 010-4608-3700, and identifies the agent as Kang Young-hee.

• 권리분석·현장답사·입찰대행·낙찰(잔금부족시 최저금리 대출일선)시 최저금리 대출일선(잔금부족시)-평도(이사)